

민법(친족상속법 제외)<필수>
2021년도 국가공무원 5급(행정)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

응시번호 :

성명 :

제 1 문. 甲은 乙에게 기계설비의 제작을 의뢰하였다. 乙은 의뢰 받은 기계설비를 제작하였는데, 그에 필요한 재료는 전부 乙이 조달하였다. 乙은 기계설비를 완성하고 甲의 검수를 마친 후 대금을 지급받고 해당 기계설비를 甲에게 인도하였다.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. (총 30점)

- 1) 당사자 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, 위 기계설비의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설명하시오. (10점)
- 2) 甲이 실제 기계설비를 가동하여 보니 검수에서 드러나지는 않았으나, 그 기계에 문제가 있어 당초에 요구하는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점이 밝혀졌다. 甲은 乙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, 乙은 기계설비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담보책임만이 문제될 뿐 채무불이행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. 乙의 주장에 관하여 검토하시오. (10점)
- 3) 다음과 같이 사실관계가 추가되고, 이후 대금채권양수인 丙이 「민법」 제666조상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, 甲의 일반채권자 丁은 丙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에 대하여 어떠한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. (10점)

—<추가된 사실관계>—

甲은 乙과의 사이에서는 건물공사에 관한 계약도 존재하여, 乙은 건물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물의 보존등기를 甲 명의로 마쳤다. 그런데 인도된 기계설비와 관련하여 甲과 乙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, 乙은 건물공사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.

제 2 문. 甲은 서로 인접한 12-3 토지와 12-4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중 2000. 5. 1. 乙과 12-3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. 매매계약 체결 당시 甲과 乙은 12-3 토지를 직접 살펴보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, 그들이 살펴본 토지가 12-4 토지인 것으로 잘못 알고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목적물을 12-4 토지라고 기재하였다. 이후 매매계약에 따라 2000. 8. 1. 乙은 12-3 토지를 인도받았으나, 소유권이전등기는 12-4 토지에 대하여 마쳤다.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.

(총 30점)

- 1) 甲과 乙 사이 매매가 성립한다면 그 목적물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. (6점)
- 2) 위 1)의 목적물에 대한 乙의 소유권 취득에 관하여 2020. 9. 1. 현재 甲과 乙이 주장할 수 있는 바를 설명하시오. (14점)
- 3) 다음과 같이 사실관계가 추가된 경우, 乙의 구제방안을 검토하시오. (10점)

—<추가된 사실관계>—

甲은 위 1)의 목적물을 2020. 11. 1. 선의의 丙에게 매도하고, 2020. 12. 31. 丙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받음과 동시에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

제 3 문. A 회사는 乙로부터 2018. 8. 1. Y 공장건물의 증축 및 신축 공사를 총 공사대금 5억 원에 도급받았다. 한편, A회사는 2018. 9. 1. 오전 甲과 건설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甲으로부터 건설자재를 공급받았는데, 그 계약내용에 따르면 자재대금은 총 1억 원으로 하고, 계약금 1천만 원은 계약 체결 시에 지급하고, 중도금과 잔금은 각각 2019. 3. 1.에 5천만 원, 2019. 8. 1.에 4천만 원을 지급하며, 그 모든 대금이 지급될 때까지 건설자재의 소유권을 매도인인 甲이 그대로 가지고 있기로 하였다.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. (각 문항은 상호 독립적임) (총 40점)

- 1) A 회사는 甲으로부터 공급받은 건설자재를 이용하여 Y 공장건물의 증축 및 신축 공사를 완료한 후 乙로부터 공사대금 5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방만한 경영으로 부도위기에 처하게 되었고, 이로 인해 아직까지 甲에게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. 이에 甲은 자신이 A 회사에 공급한 건설자재가 乙 소유의 Y 공장건물에 부합되었다는 이유로, 2020. 7. 1. 乙을 상대로 건설자재의 잔대금 9천만 원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. 위 소송에서, 乙은 “甲과 A 회사와의 건설자재 공급계약의 체결 사실과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으나, 자신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5억 원을 지급하였으므로, 당연히 A 회사가 甲에게 매대 잔대금 9천만 원을 완납한 줄 알고 있었다.”고 주장하였고, 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었다. 이 경우,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설명하시오. (20점)
- 2) 다음과 같이 사실관계가 변경된 경우, 甲의 해제가 유효한지에 대해 계약금의 성질을 논한 후 그 논거와 함께 설명하시오. (20점)

—<변경된 사실관계>—

A 회사는 甲과의 계약체결 당시(2018. 9. 1. 오전) 소지하고 있던 1백만 원을 먼저 지급한 후, 나머지 계약금 9백만 원은 다음 날 甲의 계좌로 송금한 뒤 甲으로부터 건설자재를 공급받기로 합의하였다. 그런데 甲은 2018. 9. 1. 오후에 B 회사로부터 건설자재가 급히 필요하니 甲이 A 회사에 공급하려고 했던 건설자재를 1억 5천만 원에 매수하겠다는 제의를 받았다. 이에 甲은 2018. 9. 2. 200만 원을 공탁하면서 A 회사에 계약금에 기한 해제를 한다고 통지하였다.

인사혁신처 시험출제과장